

SM C&C LETTER

2021.09 | No.143

이/번/달 줄/거/리

광고 사업 | 11번가에 아마존이, 와쌌!

STUDIO |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리얼 체험쇼 '괴로운 체험단'

매니지먼트 | 광복절에 진심! 박성광이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

여행 사업 | MICE팀이 준비하고 있는 국내외 행사 모음.zip

SM INSIDE | [인터뷰] SM C&C 2분기 우수사원 만나봤SM

ADVERTISING



11D | amazon

11번가에 아마존이, 와쌌!

11번가가 새로운 해외쇼핑 서비스로 고객들을 찾아왔습니다. 무려 글로벌 쇼핑 1위 기업인 아마존과의 만남으로 말이죠. 여기에 대세 배우 김선호가 중독성 있는 '와쌌 song' 과 숨은 댄스 실력까지 아낌없이 발휘한 11번가의 캠페인 기획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 자세히 보기](#)

《 SM On Air 》



SK주식회사
'ESG로 세상.행복하도록' 캠페인



11번가
'11번가에 아마존이 와쌌' 캠페인



브랜드를 즐겁게 맛보고 즐기는 '괴체'의 정체는?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리얼 체험쇼가 있습니다. 여러 예능에서 입증된 화려한 입담의 주인공 악동콤비 이용진, 이진호가 체험단장, 체험부단장으로 나서 신제품을 리얼하게 체험하는 '괴로운 체험단'입니다. '광고인 것 알지만 재밌어서 찾아보는 광고'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 체험단, 무엇을 격하게 체험했는지 알아보까요?

[+자세히 보기](#)



선한 영향력으로 주위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 우리는 그를 '박성광'이라 불러요

알고 보니 '부캐' 부자 박성광이 올해 8월 15일 조금 더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본인의 생일, 반려견의 생일, 결혼기념일까지 모두 8월 15일인 개그맨 박성광이 보낸 특별한 광복절과 누구보다 진심으로 '나눔'을 실천해 온 박성광이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만나봅니다.

[+자세히 보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성큼’ 우리는 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 MICE팀이 전하는 국내외 행사 모음.zip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여행업계는 해외여행에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토대로 2년간 접어 뒀던 여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행 Center 역시 선제적으로 연말, 내년도 기업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사들을 위해 안전한 기업 출장과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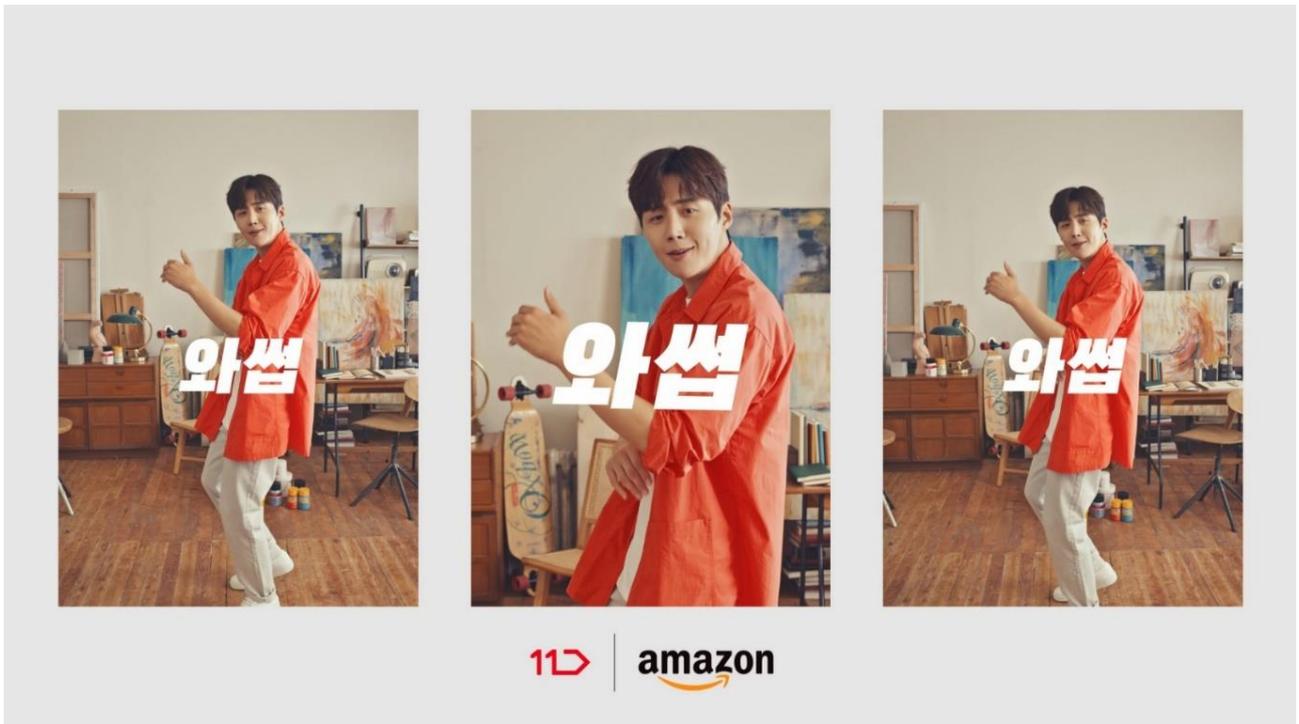
[+자세히 보기](#)



2021년 2분기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어벤져스 이야기 들어보겠SM?

SM C&C에 우수사원 포상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올해 2분기 공식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우수사원으로 선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같이 "제가요? 왜요?"라고 반문한 11명의 우수사원 어벤져스. 고마운 팀원들에게는 무슨 말을 남겼는지, 포상금으로는 무엇을 할 예정인지 들어볼까요?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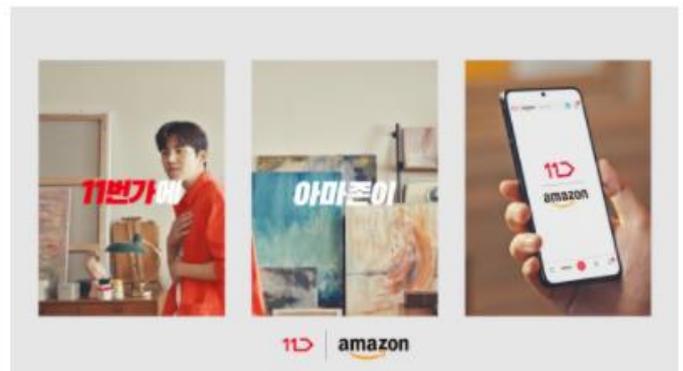
“11 번가에 아마존이, 와쌌!”

글. 광고사업 Unit CP3 팀 강정환

국내 최대와 글로벌 최대의 만남으로 '아마존이 와쌌'

국내 e 커머스 시장을 대표하는 **11 번가**가 새로운 해외쇼핑 서비스로 고객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 이용해야 했던 **직구서비스**를 11 번가 플랫폼으로 가져오면서 **쉽고 간편하게 해외쇼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11 번가의 **아마존 서비스 런칭**은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e 커머스 생태계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 번가의 **아마존 서비스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중독성 있는 춤과 노래를 중심으로
 봄업에 목적을 둔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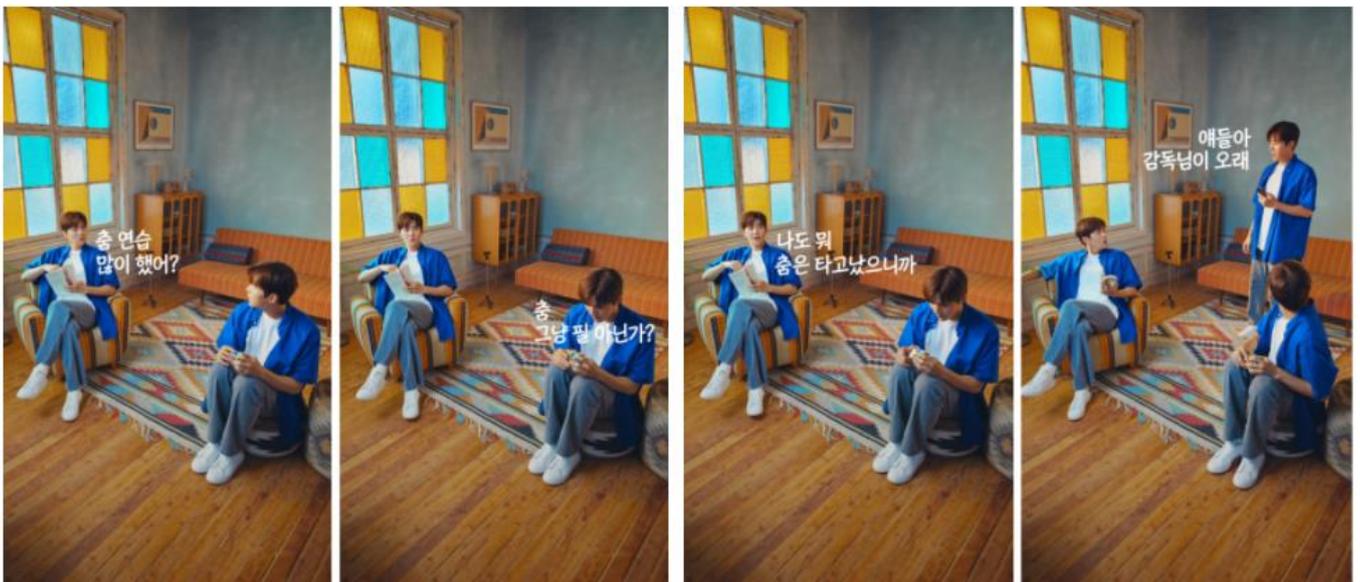




▲11번가에 아마존이 와셋편_TVC

광고인가, 콘텐츠 인가

'11 번가에 아마존이 와셋' 캠페인은 11 번가에 아마존 서비스가 들어왔다는 내용의 **'와셋 TVC 편'**, 그리고 모델 김선호가 각기 다른 3 명의 선호호 등장하여 댄스 배틀을 펼치는 **'와셋 Digital 편'** 그리고 일반인 모델 남/여가 등장해 춤추는 **'와셋일반인모델편(남/여 버전)'**으로 총 4 편의 영상 소재가 제작되었습니다. **와셋 TVC 편**에서는 '11 번가에 아마존이 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와셋댄스를 추는 **김선호의 재기발랄한 모습**이, **와셋 Digital 편**에서는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세명의 선호호가 **능청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며 매력적인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모델편**에서는 아마존 상품을 배송 받고 신이나 와셋 춤을 추는 컨셉으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댄스 콘텐츠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11번가에 아마존이 와셋편_Digital

몸치와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사실 배우 김선호는 '뺨뺨 선호'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춤을 잘 추는 것은 아닌데요. 본인 또한 이 점을 인지하고, 춤추는 것을 굉장히 민망해했습니다. 촬영장에 도착한 그는 대기실에서 나와 연습해온 춤을 스텝들 앞에서 취보며 부끄러움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광고주도, 대행사 직원들도 모두 같이 안무를 따라 하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모델 김선호는 촬영 직전 "나는 춤을 잘 춘다. 나는 배우다. 나는 할 수 있다"라며 스스로 주문을 걸고 감정 컨트롤을 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된 후에는 춤에 대한 걱정을 호소했던 게 무색할 만큼 잘 났으며, 표정연기까지 더해져 재미있는 광고물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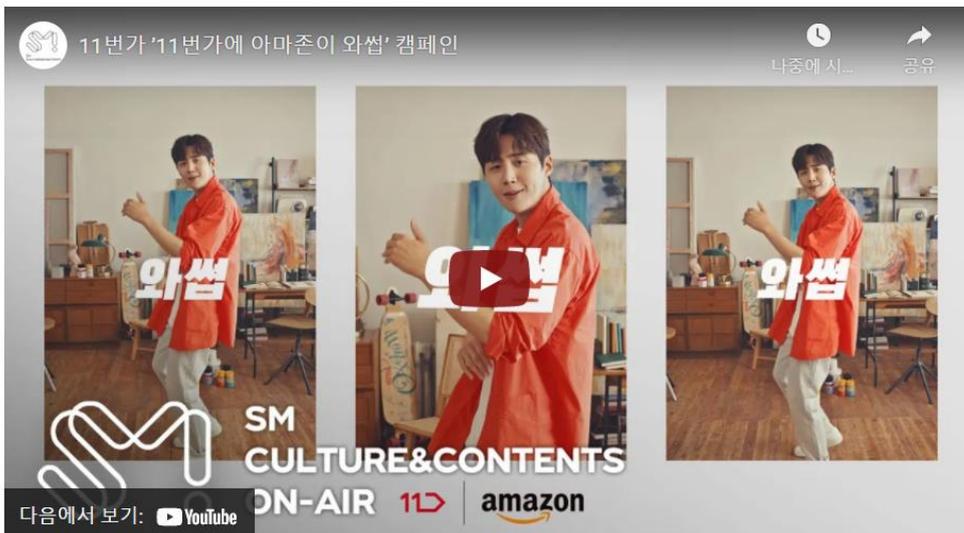


▲11번가에 아마존이 와쌌편_OOH

해외쇼핑의 고유명사가 되는 날까지

이번 캠페인은 핵심인 춤과 노래를 기반으로 붐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이슈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외직구 = 11 번가' 가 떠오를 수 있도록 **TV와 디지털, 옥외, PPL** 까지 폭넓은 활동으로 '해외직구'에 대한 이미지를 **11 번가에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또, 디지털 트렌드에 밝은 **MZ 세대**들을 위한 **틱톡 전용 콘텐츠**도 공개할 예정인데요. 다양한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이번 IMC 활동을 통해 **직구를 이용해본 고객뿐만 아니라 처음 11 번가 아마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소비자까지 모두가 11 번가에서 행복한 쇼핑 생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상 바로 보기





“브랜드를 즐겁게 맛보고 즐기는 ‘괴체’의 정체는?”

세상에 없던 제품들을 만천하에 소개하는 본격 **앞.광.고** 콘텐츠 **‘괴로운 체험단’**을 소개합니다

글. SM C&C 콘텐츠마케팅팀 윤진희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리얼 체험쇼**가 등장했습니다.

여러 예능에서 재치가 입증된 악동콤비 **이용진**, **이진호**가 체험단장, 체험부단장으로 나서 **신제품을 리얼하게 체험**하는데요. 티격태격 케미를 앞세운 **‘용진호’**(이용진+이진호) 콤비가 체험단으로 출격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로 **‘괴로운 체험단’**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SM C&C STUDIO** 부문에서 기획 제작한 '괴로운 체험단'은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은 대세 예능프로그램 **‘괴로운 데이트’의 스핀오프(Spin-off)* 버전**입니다. 제품을 탈탈 털어서 소개하는 본격 **앞광고 컨셉의 콩트형 토크쇼**로,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브랜드 콘텐츠(Branded Contents)****를 표방합니다. 업로드만 하면 조회수 **100 만회**는 가뿐히 넘기는 SM C&C의 효자 콘텐츠가 됐습니다.

* 스핀오프 : 오리지널 영화나 드라마를 바탕으로 새롭게 파생되어 나온 작품

** 브랜드 콘텐츠 : 기업 스스로 자신들의 브랜드를 콘텐츠화 한 것

‘괴로운 체험단’은 제품의 핵심 기술부터 특징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 직접 제품을 체험한 출연진들의 **핀리뷰**를 보여주며 매회 필터링 없는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광고인 것 알지만 재미있어서 찾아보는 광고’**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현재 3 회차까지 진행된 '괴로운 체험단'!
무엇을 격하게 체험했는지 알아보까요?

[Epi 1. 괴로운 체험단 X 삼성전자 비스포크 슈드레서]

'괴로운 체험단'의 첫 시작은 '삼성전자 비스포크 슈드레서'와 함께 했습니다. 에어드레서의 신발 버전인 '슈드레서'는 탈취·건조·살균을 통해 신발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주는 신발관리기입니다. '비스포크(Bespoke)'를 붙이고 나온 이 제품은 의류를 넘어 신발까지 위생적으로 관리하려는 소비자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판매 랭킹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핫한 신제품,
'용진호'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용진호' 두 체험단장이 연예계 소문난 신발매니아 슈퍼주니어 이득, 은혁, 산다라박과 함께 직접 사용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유튜버 아옴이와 파뚜롭, 개그맨 박성광, 박영진도 출연해 슈드레서 사용 전후를 비교하며 제품의 특징점을 낱낱이 알렸습니다. 냄새 측정기까지 동원해 슈드레서의 기능을 수치로 증명해 소비자들이 구매 전 고려할 만한 요소들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센스까지 제대로 발휘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첫 회인만큼, 첫 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인만큼 조회수가 170 만회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두 MC와 유튜버 파뚜롭이 유명 브랜드 신발 매장에서 슈드레서를 사용해보고 있는 모습. 출처=SM C&C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유명 브랜드 신발 매장, 슈드레서 체험룸이 있는 신라호텔 등 다양한 장소에서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사용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체험단! **다음으로 리뷰하게 될 제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Epi 2. 괴로운 체험단 X 삼성전자 갤럭시 북]

비스포크 슈드레서에 이어 체험단이 리뷰한 제품 역시 **삼성전자의 신제품**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도 '괴로운 체험단 슈드레서 편'에 소비자들이 보여준 **긍정적인 반응**에 힘 입어 다시 한번 **SM C&C STUDIO '괴로운 체험단'**과 함께 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전 세계 동시 출시된 노트북 '갤럭시 북 PRO'와 '갤럭시 북 PRO 360'을 체험할 체험단원은 소녀시대 써니, 아나운서 장예원, 유튜버 파두름이었습니다.

두 MC와 체험단원들은 스마트폰·태블릿·웨어러블 등 다양한 갤럭시 기기들과 쉽고 빠르게 연동되는 '갤럭시 연결성'에 주목해 갤럭시 북을 체험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기기 간 사진, 영상, 파일들을 공유할 수 있는 '퀵 셰어(Quick Share)'

기능, '갤럭시 북'의 화면을 최신 태블릿에 복제 혹은 확장해 듀얼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세컨드 스크린(Second screen)' 기능에 특히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소녀시대 써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조카를 비롯해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학습이 많은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교육 필수템"이라고 경험에서 우러나는 제품 체험 후기를 전했고, 장예원 아나운서는 "빛내서 살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 덧붙였습니다.



▲ (사진 왼쪽부터) 이윤진, 유튜버 파두름, 이진호, 장예원, 써니가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갤럭시 북 시리즈를 사용해보고 있다. | 출처=SM C&C



[Epi 3. 괴로운 체험단 X 인천국제공항]

앞선 두 편이 소비재 제품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다면, 용진호와 체험단원들이 세 번째로 체험한 대상은 바로 **'공간'**이었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여행객들이 많이 줄어든 **'인천국제공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행이 재개되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새 단장이 한창인 '인천국제공항'을 두 MC와 개그맨 박성광이 구석구석 돌아봤습니다.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세계 1위** 자리를 **12년 연속** 유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리뉴얼 중인 인천국제공항은 촬영 전 **'공항이 뭐가 어떻게 달라지지?'**라는 의문점만 가득했던 용진호의 눈을 커지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미디어타워 앞에서 오프닝 중인 (사진 왼쪽부터) 이용진, 개그맨 박성광, 이진호 | 출처=SM C&C

손의 움직임에 따라 미디어타워 속 화면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미디어타워 센싱 프레임'**부터 대형 나무 조형물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식물들로 구성된 공항 속의 작은 정원 **'리틀 포레스트'**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변모해 있어 용진호와 박성광을 놀라게 했습니다.



▲ (사진 왼쪽부터) 미디어타워 센싱프레임, 리틀 포레스트 | 출처=SM C&C STUDIO 유튜브 캡처

코로나 19로 우리는 잠시 여행을 잊고 공항을 잊었지만 그 사이 '공항'은 '최첨단'과 '쾌적함', '이국적인 설렘'이라는 옷으로 갈아 입고 #다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도 체험을 마무리하며 이진호는 "해외여행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며 거듭 감탄했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매회 게스트들의 솔직한 체험 리뷰와 용진호의 티키타카 입담으로 높은 화제성을 이끌어 내고 있는 <괴로운 체험단>을 연출한 이원영 PD을 만나, 이 프로그램의 기획 스토리를 짧게 들어봤습니다.

Q.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프로그램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A. 주로 광고 촬영이라 하면 딱딱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분위기 메이커인 두 MC 덕분에 촬영현장은 더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입니다. 용진호가 비방용 멘트들을 거침없이(?) 구사해 편집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웃음) 아직은 이 부분을 직접 공개할 순 없지만 비하인드 에피소드로 찾아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원영 PD | 출처=SM C&C

Q. 많은 협찬사들이 '괴로운 체험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꼭 해보고 싶은 제품이나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A. 이용진님이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양한 종류의 술, 숙취해소제, 프랜차이즈 술집 등 술과 관련된 브랜드를 체험하면 출연진도 진정성 있게 설명을 잘 해줄 것 같습니다. 제품뿐 아니라 어떠한 아이템도 콘텐츠 내 노출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편도 '이런 곳도 홍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든 예상치 못한 공간이었지만, 워낙 두 MC의 케미가 좋아 재밌게 촬영했어요.

Q. '괴로운 체험단'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A. 단순 광고성이 짙은 콘텐츠보다 시청자 입장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미가 있으면 광고도 직접 찾아보는 시대잖아요. 시청자 입장들이 저희 콘텐츠를 재밌어하며 직접 찾아보는 콘텐츠가 됐으면,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광고효과가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스트는 괴롭게, 오감 체험으로 PPL은 제대로! 앞광고하는 **'괴로운 체험단'**!

용진호와 체험단원들이 체험할 **다음 콘텐츠**도 기대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그래서 더)* **리얼한 체험쇼**가 불시에 찾아갑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주위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
우리는 그를 '박성광'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 부캐만 3 개?! 유기견 아빠 박성광, 기부자 박성광, 그리고 이제는 OOOO 박성광까지 -

글. SM C&C 매니지먼트 부문 이현지

한국인 모두에게 뜻 깊은 날인 광복절에 누구보다 진심인 연예인이 있습니다.
본인의 생일, 반려견의 생일, 결혼기념일까지 모두 8월 15일인 **개그맨 박성광**입니다.

역사적인 이 날이 일생일대의 기념일인 박성광에게 올해 8월 15일은 조금 더 특별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화려하고 거창한 파티로 기념일을 축하하는 대신, "첫 결혼기념일이니 좋은 날에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내 이슬이와 함께 유기견보호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버리지 마세요, 가족이에요"

방송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유기견에 대해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며 유기견 보호에 앞장서온 박성광. 그는 유기견 보호 외에도 한국소아암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한의사협회 등 도움이 절실한 여러 단체에 기부하고 직접 봉사활동을 펼치며 **꾸준히 선행**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9월호 뉴스레터에서는 **박성광**이 전파한 **선한 영향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캐 1. 유기견들의 든든한 '유기견 아빠' 박성광



▲유기견 봉사활동에 나선 박성광. 출처=박성광 인스타그램

박성광은 반려견 '**광복이**'의 **아빠**로서 유기견 봉사활동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힘들었던 시기에 반려견 광복이를 만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박성광은 **광복이로부터 받은 긍정의 에너지를 여러 선행 활동을 통해 아낌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꾸준히 유기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난 8월 5일에는 광복이가 찍은 한 광고의 모델료를 용인시 동물보호협회에 모두 기부하며 **'진 애견인'**의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재 유기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외부구충제, 심장사상충약이었다"**며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용인시 동물보호협회에 후원한 박성광. 출처=박성광 인스타그램

#부캐 2. 선행 부부가 여기 있었네- '기부자 박성광'



▲한국소아암재단에 손소독크림을 후원한 박성광 부부. 출처=박성광 인스타그램

박성광은 유기견 보호소 외에도 **기부처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15일 결혼 후 아내 이솔이와 함께 봉사활동과 더불어 후원 활동 및 기부를 늘려가는 중입니다. 지난해 2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대한의료협회에 1500만원 상당의 의료용 멸균 가운을, 올해 7월에는 한국소아암재단에 손소독 크림을 기부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후원해왔습니다.

...

#부캐 3. 첫 장편 영화에 도전! '영화감독 박성광'

최근에는 그가 가진 또 다른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박성광은 **영화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이어갈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영화예술학을 전공한 박성광**은 방송 활동을 병행하며 **꾸준히 영화 감독으로도 커리어를 이어왔습니다.** 현재까지 연출한 세 편의 영화가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죠.



▲ 영화 촬영장에서 디렉팅을 하고 있는 박성광. 출처=박성광 인스타그램

그는 지난 2011년 5분짜리 단편 영화 '육'의 감독 겸 주연으로 데뷔했고 2017년에는 28분짜리 단편 멜로영화 '슬프지 않아 슬픈'을 연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MBC 웹예능 '돈플릭스' 시즌2를 통해 가족 간의 심리를 다룬 단편 영화 '관'을 선보이며 '감독 박성광'을 제대로 각인시켰습니다.

올해 8월, 첫 장편 영화 연출에 도전하는 박성광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

"뭔가 힘들고 외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개그맨이 영화 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없잖아요.
주변의 편견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설레면서도 부담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 이상한 기분이에요.
처음 개그맨 됐을 때의 느낌 같기도 하고요.

**영화,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부디 편견 갖지 않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성광 (21.08.02 YTN 인터뷰)



▲박성광. 출처=SM C&C

그동안 때로는 '유기견 아빠'로, 때로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서슴없이 손 내미는 '기부 부자'로 따뜻한 행보들로 세상을 밝힌 박성광이 영화 감독으로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풀어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박성광을 향한 많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성큼’ 우리는 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 MICE 팀이 준비하고 있는 국내외 행사 모음.zip」

- 35년 기업 전문 여행사가 준비하는 하와이·시드니·괌·인천·제주도 행사는 어떨까요?

글. SM C&C 여행사업부문 MICE 팀 유수안

요란했던 매미소리가 시들고 선선한 바람이 기웃거리는 9월입니다. 아직은 가기 싫어 망기적거리는 여름과 아직은 풋내나는 가을을 동시에 조우할 수 있는 이 달, 한쪽으로 밀어뒀던 여행 생각이 또 한번 간절해집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여러 긍정적인 검토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 고객들도 코로나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어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2년간 접어뒀던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행 Center 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 19의 기세가 누그러져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떠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바람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여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SM C&C 여행 Center**가
준비하고 있는 기업 행사를 만나러 가실까요?

#. 해외 편

1. [A 사 - 하와이]

오는 11 월부터 코로나 19 여파로 닫혔던 **인천~하와이** 하늘길이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인천~하와이 노선 정기편 운항을 오는 11 월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21.9.7 기준). 대한항공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연말부터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운항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하와이**는 해외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2 차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인구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국내 A 사는 '하와이는 PCR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자가 격리없이 이웃 섬으로의 여행도 가능하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MICE 팀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와이는 현재 한국인에게 '방문객 사전 검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와이행 비행기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하와이에 입국한 뒤 10일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오아후섬으로 입국한 뒤에는 자가격리 의무 없이 이웃 섬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하와이는 업계에서 유명한 관광지였지만 코로나 19 이후 낮아진 수요를 올리기 위해 하와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수월한 여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2. [B 사 - 호주 시드니]

B 사는 내년 2022 년 3 월 약 3000 여명의 인원을 커버하는 **시드니**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B 사에서는 SM C&C 여행 Center 에 기존 타사에서도 진행되던 투어가 아닌 새롭고 신선한 투어를 요청했습니다. MICE 팀은 시드니와 시드니 근교를 살살이 찾았고 항상 해오던 일반적인 기업 투어 코스와 관광지가 아닌 이색적인 여행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SM C&C 여행 Center 에서 행사를 수주했습니다.

코로나 사정으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코로나 19 초반과는 달리 행사 전면 취소 대신 보다 안전하고, 또 즐겁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캠프 코브 비치에서 바라본 풍경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3. [C사 - 괌]

국내 굴지의 C사에서 SM C&C 여행 Center로 소그룹 행사를 의뢰해왔습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분들이었기에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목적지는 **괌**이었습니다.

현재 괌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자가격리 없는 여행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괌의 성인 80%는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더 안전한 여행을 즐기기에 적당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비행기로 4시간이면 도달하는 아름다운 섬 괌으로 오랜만에 여행을 준비하는 회장단! 이 여행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해외여행이 조금 더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저희 역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괌 투문비치 전경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국내 편

4. [D 사 - 인천]

중국과 남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을 만든 온라인 게임업체 D 사는 매년 저희 MICE 팀과 중국과 등지에서 게임대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중국에서 크게 흥행한 게임인만큼 그동안 주로 중국에서 그랜드 파이널 대회가 열려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로 인해 예년과 같이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가 없었고 많은 고민 끝에 한국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연계한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D 사는 지난해 동대문 DDP 에서 게임대회를 열었고 올해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MICE 팀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ICE 팀은 각국 선수들의 14 일 격리, 코로나 19 검사 두 차례 진행, 외부와의 접촉 최소화 위한 전용 차량 운행, 팀별 차량 이동, 소독, 동선 최소화 등 방침을 통해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이보다 한층 방역을 강화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 [E 사 - 제주도]

E 사는 매년 진행하던 해외 인센티브 트립을 올해부터 제주도로 지역 변경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상휴가'인데 휴가를 떠날 수 있는 범위가 국내로 한정되다보니 제주도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지만 차량 이동, 식사, 단체 이벤트 등을 저희 MICE 팀만의 안전 매뉴얼대로 준수하며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왼쪽)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단 방으로 식사를 배달 중인 MICE 팀 직원
(오른쪽) 방역 물품을 나누어주고 있는 MICE 팀 직원들 | 출처=SM C&C

MICE 팀은 이미 지난해 11 월 260 명 제주도 인센티브 트립 진행을 의뢰 받아 안전하게 기업 행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260 명을 n 차수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일행이 아닌 타인과 최대한 접촉을 줄이기 위해 저희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을 선정하거나 저희만 참여할 수 있는 **단독 프로그램 위주로 일정을 짰습니다.** 예를 들어 곳자왈 환상숲 트레킹의 경우, 숲 해설가 1 명당 몇십명의 관광객이 함께하지만 이번 행사인 경우 **저희 일행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굴 따기 체험의 경우에도 굴밭에 저희만 머무를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해 고객사에서 맘 편히 안전하게 체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도 45 인승 리무진 버스를 대절해 버스 정원의 절반만 탑승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코로나에 감염된 인원 1 명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쳤습니다**

*"삶이 부과하는 문제가 까다로울수록 나는 여행을 더 갈망했다.
그것은 리셋에 대한 희망이었을 것이다."*

작가 김영하의 책 '여행의 이유'에 적힌 한 구절입니다. 마스크 속 한줌의 공기만 허락된 날들이 이어지니 더욱 와 닿는 구절입니다. 코로나 19 가 여행산업 전반에 부과한 문제들로 많은 여행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SM C&C 여행 Center 는 이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해외 행사는 국내 행사로, 대형 행사는 소규모로 나눠 철저한 방역 기준에 맞춰 진행 중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35 년 기업 전문 여행사의 면모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올 가을에는 여행업계에 **그린라이트**가 다시 켜지기를 희망해봅니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2021년 2분기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어벤져스 이야기 들어보겠 SM?

- 21년 2분기 '우수사원 포상제도'의 (거의) 모든 것

글/인터뷰 PR Group PR 팀 김서연

한때 서점가 경제/경영 분야에 '하이 퍼포머(High Performer, 뛰어난 성과와 열정을 가진 인재)'를 소재로 한 책들이 앞다퉈 베스트 셀러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재택근무 현상과 맞물려 이 개념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개개인의 책임과 권한, 일하는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능동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재택근무 특성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들이 조직에 기여하는 성과와 공헌도가 높은 하이 퍼포머들에 더욱 주목하는 요즘입니다.

SM C&C도 이런 하이 퍼포머들의 노력에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우수사원 포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여준 구성원에 적극 포상을 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올해 2분기 처음으로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공동 대표이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각 사업부문에서 추천한 우수사원 후보자들을 심의 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2분기 우수사원 선정 과정은 7월 초부터 시작됐으며 최종 선정되기까지 약 **두 달** 가량의 검토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긴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11 명의 우수사원들! 이 분들을 서면으로 인터뷰 해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수사원으로 선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요? 왜요?"라고 반문했다는 점, 하나같이 공을 같은 팀원들에게 돌렸다는 점**입니다.

SM C&C 21 년도 2 분기 우수사원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우수사원들에게 제공된 포상금으로는 무엇을 할 예정인지,
고마운 팀원들에게는 무슨 말을 남겼는지 들어볼까요?

. . .



2021년 2분기 SM C&C 우수사원을 소개합니다!

<p>이은정 광고사업 Unit OMG팀 ECD 코웨이 BTS 캠페인 런칭, 한화생명 경쟁PT 수주</p>	<p>이지연 광고사업 Unit C13팀 팀원 AIA생명 경쟁PT, 하나금융그룹 신규캠페인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p>	<p>김영석 광고사업 Unit CMI팀 팀원 동아제약 디지털 AOR 광고주 수주 등에 기여</p>	<p>황재봉 광고사업 Unit TC2팀 팀원 SK텔레콤 메인 AE로서 캠페인 매니지먼트, 클라이언트 관리, 팀 운영 전반에 기여</p>
<p>김지선 STUDIO 부문 시실 실장 유튜브 오리지널 '아날로그 트립' 'SM Congress 2021' 제작실무 총괄, 채널S 협력 프로그램 및 신규 프로젝트 다수 진행</p>	<p>국용호 여행 Center MICE 팀 팀원 경쟁입찰을 통해 A사의 2022년 대형 행사 프로젝트 3개 통괄 수주</p>	<p>변동현 Business Unit Internal Control 팀 팀장 前 여행사업부 인사총무 업무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소송 등 대외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도출</p>	<p>김승리 Commerce Group Sales Strategy 팀 팀장 커머스 사업 추진에 큰 기여</p>
<p>천명현 STUDIO 부문 콘텐츠사업기획실 실장 콘텐츠사업기획실 체계 구축 및 프로젝트 수익률 향상에 높은 기여</p>	<p>안문욱 매니지먼트부문 MC매니지먼트 1실 팀원 많은 스케줄에도 담당 아티스트에 대한 철저한 업무 수행 담당</p>	<p>이태구 매니지먼트부문 MC매니지먼트 3실 팀원 많은 지방 스케줄에도 업무를 훌륭히 수행 성실한 태도로 조직 내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어 구성원들의 모범 사례가 됨</p>	

출처=인사팀, 정리=PR팀

먼저, 우수사원에 선정된 소감을 들어볼게요. 인사팀에서 일일이 열한명의 우수사원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수사원으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첫 마디가 무엇이었나요?

이지연(C13 팀) - "제가요? 제가 왜죠?" 라고 몇 번이나 되물었던 기억이 나요. (웃음) 경쟁 PT 도, 광고를 만드는 일도, 클라이언트 업무도 **광고 기획자 한 명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도 되나' 싶어 많이 당황스럽고 민망했어요.

김승리(Sales Strategy 팀) - "제가 왜요...?"라고 제일 먼저 반문했어요. **"팀원들이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덧붙였습니다. (웃음)

변동현(Internal Control 팀) -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 선정된 것 자체에 너무 놀랐어요. 가족과 같이 휴가를 보내는 중에 연락을 받은 터라 저희 가족에겐 **최고의 휴가 선물**이 됐습니다.

안문욱(MC1 실) -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요. 주책일까봐 무덤덤한 척 전화 받았습니.

우수사원을 예상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군요. 기분 좋은 당황함이 글에서도 느껴집니다.

본인이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은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석(CM1 팀) - 굳이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동아제약 디지털 미디어 AOR 비딩을** 수주한 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수행한 역할보다는 저희 팀 서현주 팀장님과 박래권 부장님, 그리고 동아제약 담당 CP 분들께서 고생해 주신 게 더 큰데요. 그간 제가 동아제약 디지털 담당을 해왔던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선정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천명현(콘텐츠사업기획실) - 올해 콘텐츠사업기획실이 신설되면서 **브랜드 콘텐츠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김지선(A1 실) - 팀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는 것들이 더 많아서 제가 받고서도 민망함이 더 큰데요. (웃음) 올해 실장이 되고 많은 프로젝트들을 정리하면서 **팀원들과 상호작용 하는 부분들을** 좋게 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구(MC3 실) - 많은 지방 촬영을 다니면서 사고나 큰 문제없이 **스케줄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한 점**을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반환점을 돈지 오래고 3분기도 벌써 뒤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보람 있었던 부분이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나요?

황재봉(TC2 팀) - 지난해 10월 초에 시작해 1년 가까이 준비해온 **SK 텔레콤의 신규 브랜드 론칭 캠페인**이 드디어 9월 온에어 됩니다. 그동안 다양하고 수많은 제안들을 했고 캠페인 제작 과정에서도 고려해야 할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캠페인이었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가장 보람찬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김승리(Sales Strategy 팀) - **애플브라운 자사물 오픈 했을 때**를 잊을 수 없네요. 코딩에 대해 갖고 있던 아-주 얕은 지식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해결해냈다는 사실이 정말 보람 있었어요.**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그동안 일해왔던 영역이 아닌 생소한 곳에서 신사업 세팅을 하다 보니 설명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았던 점이에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이나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 퇴근할 때 되면 진이 조금 빠지더라고요. 저야 이런 일을 계속하다가 이어서 하는 건데 커머스 기획과 운영을 처음 하셔야 했던 구성원 분들도 저 못지않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국용호(MICE 팀) - 국내에서 가장 큰 이벤트 행사의 제안서를 팀원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협업이 잘 되는 팀원들에게** 감사했어요. 한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을 제안했지만 **비딩을 통해 최종 선정**이 되었을 때 가장 기뻐했습니다.

변동현(Internal Control 팀) - 여행 Center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전 구성원들이 다 같이 이겨 내기 위해 근무제 변경,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을 지난해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회사에 **여행사업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드렸던 게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포상금이 주어졌는데요. 이 포상금으로는 무엇을 하실 예정인가요?

이지연(CI3 팀) - 며칠 전,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음식물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신생아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출생신고도 안되어서 국가 지원도 당장은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기 **후원계좌**가 생긴 걸 보고 아기가 잘 치료받고 자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상금의 일부**를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저금이요!

김영석(CM1 팀) - 저희 팀원 분들의 도움으로 받은 포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저희 고마운 팀원들과 나누**겠습니다.

국용호(MICE 팀) - 재택근무로 매 식사를 준비해준 고생한 아내에게 바칠 예정입니다. (웃음) 포상금 중 일부는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고마운 우리 MICE 팀 팀원들에게 시원한 맥주를 쓰고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 단계가 조금 내려가면요!)

변동현(Internal Control 팀) - 바로 와이프님께 상납했습니다. (웃음) 우수사원으로 선정됐다고 전화 받을 때 와이프가 옆에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함께 고생하는 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안문욱(MC1 실) - 힘들지만 노력하고 잘 이겨내서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김지선(A1 실) - 저희 부문의 특성상 밤낮없이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팀원들 한 명 한명이 해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팀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선배가 될 수 있게 더 노력할게요!

김승리(Sales Strategy 팀) - 저희 팀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B2C 고객 상대로 하는 일이다 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있으면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항상 긴장 상태인데다 그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텐데요.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도 말 없이 다 챙겨가면서, 제가 잘한 걸로 공을 돌려줘서 항상 감사했어요. 우리 팀원분들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했을거예요.

천명현(콘텐츠사업기획실) - 올해 새로운 파트일을 하게 되어 쉽지 않았는데 팀장님들, 팀원님들 덕분에 상반기 큰 이슈 없이 잘 해냈습니다. 하반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황재봉(TC2 팀) - 개인보단 팀이라서 우수한 'TC2 Team'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company 이 라틴어 'com(함께, 공동의)'과 'panis(빵)'의 합성어임을 아시나요? 이 어원을 생각해보면 기업은 '빵을 함께 키워 나눠먹는 공동체'라는 정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어에서 기원한 '한술밥을 먹는 사이'라는 이 개념, 동서고금을 관통해 적용되는 모양입니다.

빵을 함께 키우는데 좀 더 공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한 사람당 돌아가는 빵의 몫을 늘렸고, 어떤 분은 빵의 몫을 늘리느라 고생 중인 동료들을 묵묵히 도왔고, 어떤 분은 다음 사람을 위해 어떤 빵을 만들었는지를 들어볼 수 있었죠.



인터뷰에 응해 주신 2분기 선정된 우수사원분들과
그리고 이 글을 함께 읽고 계시는 SM C&C 모든 구성원분들에게도
올해 2분기 많은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호 Best 3 다시 보기



COVER STORY

14개월 대장정으로 탄생한
'앰플브라운' 제작기

[+자세히 보기](#)



STUDIO

'랜선 밥 친구'
<신과 함께 시즌 2>가
찾아갑니다

[+자세히 보기](#)



ADVERTISING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네네는,
그렇게, 6개월 매일마다,
치킨을 튀겼나보다.

[+자세히 보기](#)



뉴스레터를 새롭게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고
수신을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12층-14층 | 발행인 : 김동준, 남궁철
© SM Culture&Contents, All rights reserved.

 [PDF 다운받기](#)